

올해 초 중국이 <무구정광경>의 '낙양 제작설'을 주장해 한·중간의 인쇄술 원조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9월29일~10월2일 양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한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그동안 <무구정광경> 제작자를 둘러싸고 한·중간에서만 공박돼 온 인쇄술 원조 논쟁이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처음으로 검증 받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편집자 주>

한국의 <무구정광경대라니경>(無垢淨光大變經, 국보126호 이하 <무구정광경>과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심경)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금속활자 인쇄본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 등이 공동 주최한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 심포지움에서 마르탱교수(소르본대 역사학)가 '한국 원조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것은 현존 최고(最古) 인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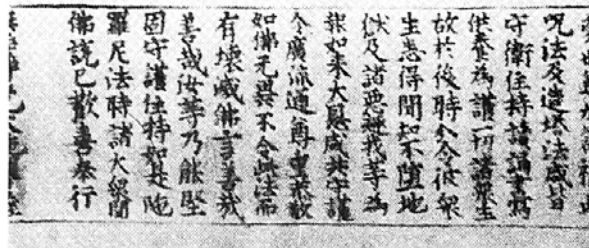
'무구정광경' 직지심체요절 最古說 서구학자들도 인정

유네스코 한국위, '고인쇄문화' 국제 심포지움

인 <무구정광경>의 제작자를 둘러싸고 한·중간의 공박이 치열했던 인쇄술 원조(元祖) 논쟁이 슈테판 퀴셀 독일 마인츠대 구텐베르크연구소 소장, 반질성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교수, 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내로라하는 국내·외 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심포지움에서 처음으로 검증 받게 된 것. 마르탱교수는 '유럽에서의 활자 인쇄의 출현과 보급 및 영향: 국

한·중간의 인쇄 원조 논쟁에서 한국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성래교수(외국어대 과학사)도 '인쇄기술사의 6가지 쟁점'에서 <무구정광경>이 중국에서 인쇄된 뒤 한국에 유입된 것이라는 중국측 주장은 당나라 측전무후가 새로 만든 글자들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라가 695년 측전무후의 역발개학을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문헌에 남아있는

조 인쇄된 대라니와 702년 낙양에서 제작된 <무구정광경> 등이 중국의 목판 인쇄 기원'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인쇄술 원조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욱이 반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도 <직지심경>이 아니라 1315~1333년 중국에서 제작된 <어시책>(御試策)'이라고 주



◇인쇄시기를 둘러싸고 한·중학계의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무구정광경대라니경>

佛 마르탱교수 "한국등 극동서 인쇄술 유럽 전파" 中 반질성교수 금속인쇄 원조설 도 주장 '새불씨'

동 인쇄사와의 비교 연구적 소고'에서 '극동 인쇄술의 역사에서 한국의 우선성을 인정해야 하며 실�크로드의 귀착점인 독일의 누른베르크에서 유럽의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극동 인쇄술의 영향'이라고 말해

만금 측전무후가 만든 활자를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무구정광경>이 낙양에서 제작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중 인쇄술 원조 논쟁의 주인공인 반질성교수는 '7세기

장해 금속활자 인쇄술 기원 논쟁도 일어날 조짐이다. 이에 대해 천혜봉교수는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달과정'에서 '중국에서 금속활자인쇄를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명나라의 15세기 <금수만화곡>(錦繡萬花谷)'이라고 지적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중국보다 2세기 앞선다며 반교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종욱 기자>



서점사원 블로그 미술품 30여점 그래픽 제공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돈황

금세기에 발견된 불교 유적중 경전, 미술, 문학의 보고를 꼽는다면 단연 돈황(敦煌)일 것이다. 돈황은 366년부터 서하가 멸망할 때까지 중앙아시아의 여러 왕국에서 건너온 승려와 포교사들의 머문 거대한 불교 도시. 현재 남아있는 돈황 유적은 천불동(天佛洞)으로 불리는 수많은 석굴사원이다. '돈황' 사이트는 석굴사원의 불교미술품 중 30여점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공한다. 이중에는 석굴 275호의 '시비왕본생담'은 돈황의 초기벽화(422~439)로 석가 전생의 회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도식화된 인연의 강한 명암이 인상적이다. 당대(8세기) 부처님이 사슴으로 태어났을 때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257호 석굴의 '모리가 자타가'도 볼 수 있다. 또 사천왕상(석굴 55호), 천문도(天文圖, 석굴 322호) 등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270여개의 석굴의 석벽에 4천여번이나 그려진 '암사라스'(Apsaras) 중 대표작인 벽화 25점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놓고 있어 '암사라스'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 '암사라스'는 고대인들에게 자유 평화 행복의 상징이었다. <http://www.lzu.edu.cn/dunhuang/>

업설·계율 "삼국시대이후 법사상 뿌리"

정기웅교수 '불교와 법률문화' 첫 연구

1600년전 한반도에 유입되어 역사와 맥을 같이 해온 불교. 그동안 정치·사회·문화 등의 각 방면의 주요 가치관으로 자리매김 했던 불교가 우리나라 법률제정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었을까. 정기웅교수(국립경향대 법학과)가 9월1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국불교문화예술회 국제불교학회에서 '불교가 한국의 법률문화에 미친 영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업설(業說)과 계율(戒律) 사상 등 불교가 삼국시대 이래로 한국 사회 질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정기웅교수는 "삼국시대 국민의 신앙과 사상을 지배한 것이 불교이므로 법률문화도 선업과 계율사상을 적극 수용했다"며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용서와 관대함을 기본정신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국시대는 국민 스스로 '신도 5계'와 같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예를 들면 신라 진흥왕은 팔관제(八關祭)를 적극 권장해 국민

들이 사회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팔관제란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등 여덟가지 계율을 한달에 여섯 번 지키는 불교의 전통 수행법. 또 고구려 소수림왕은 미결죄수의 옥고를 염려하여 판결을 지체하지 말 것을 명했다. 정기웅교수는 "불교사상을 수용했던 우리의 법률문화는 계도와 준법을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며 "이것은 고려·조선·현대까지 법률문화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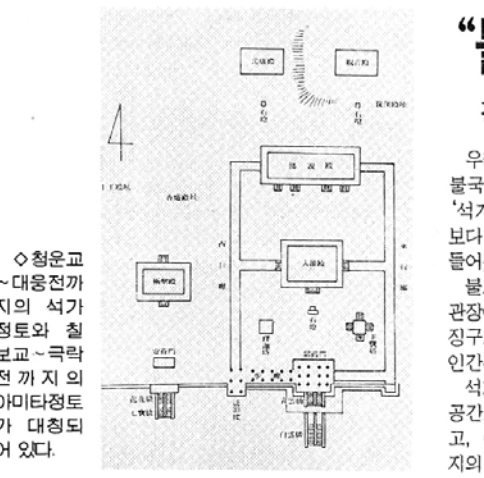


"21세기 교육개혁 불교사상으로"

동대 송석구총장, 국제불교대학협의회 '제안'

21세기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의 다양성과 종합성이며, 이것은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회삼귀일'(會三歸一) 등의 불교사상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는 분석이 나왔다. 9월19일 일본 북해도 고마자와대학에서 열린 제4회 불교·철학대학학회연주회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은 '한국불교계 대학이 지향하는 대학상'에서 '현재 학사(學舍) 중심 교육으로 변모하는 교육계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선 교육의 다양성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교육 개혁

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다양성이란 결국 현상계(現象界)의 평등성을 존중하고 깨달음을 얻게하는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석구총장은 "한·중·일을 비롯한 국제적인 불교계 대학 협의회를 구성해 21세기 교육개혁에 대응하자"며 동국대에서 10월중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50여개 종파 불교로 구성된 일본 불교계가 대학교육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고찰할 것을 제안했다.



"불국사가람 인간중심 배치" 강우방관장 밝혀

우리의 대표적 문화유산 경주 불국사. 불국사 정면 가운데 범영루의 오른쪽 '석가정토'는 왜 인종의 '아미타정토' 보다 훨씬 더 높고 넓으며 화려하게 만들어졌을까. 불교미술사학자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이 논문 '불국사 건축의 종교적 상징구조'를 통해 불국사 구조에서 불교적 인간관을 밝혀내 주목받고 있다. 석가정토는 청운교에서 대웅전까지의 공간으로 석가여래의 사바세계를 뜻하고, 아미타정토는 칠보교에서 극락전까지의 공간으로 아미타여래의 극락정토를

뜻한다. 강관장은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보다 더 장엄하게 표현한 것은 사바세계에서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것이 아미타여래에 의지해 깨달음을 얻고 극락으로 가는 것보다 더 고결하다는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정면 회랑구조에 대한 탁월한 관찰에 바탕을 둔다. 석가정토회랑의 경우 맨아래 불규칙한 석조물만이 기단이고 그 위의 정교한 석조물은 기단이 아니라 하나의 층이며 전체적으로는 2층구조가 된다. 반면 아미타정토회랑의 석조물은 두전체적으로 단층구조 결국

'석가 정토' 회랑 '아미타 정토' 보다 넓고 더 화려 스스로 깨침 '중시'

석가정토회랑을 2층으로 하고 아미타정토회랑을 단층으로 함으로써 석가정토를 더 고결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강관장은 "석조물과 목조물의 절묘하고도 아름다운 조화, 불교사상의 완벽한 구현. 이것이 바로 불국사 건축의 본질"이며 "절대자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르기 보다는 스스로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한 석가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건축물"이라고 평가했다.

'캄' 스님 3백여명 '평화행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9월22일 캄보디아 승려 3백여명이 참여한 평화행진이 전개됐다. 10여개의 캄보디아 비정부 단체들도 동참한 이번 평화행진은 지난 8월 시하누크 캄보디아 국왕이 시엠 립(Siem Reap)의 사원에서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훈센총리에 게 '내전 종식과 평화'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편 훈센총리는 시하누크 국왕의 제안을 거절해 캄보디아의 우기(雨季)가 끝나는 10월부터 내전은 재개될 전망이다.

태 불교계 "경제를 살리자" 법회

태국 불교계는 20일 경제위기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국 3만여 사찰 27만여명의 승려들이 참가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법회를 봉행했다. 태국인의 정신적 지주인 불교계가 통화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은 행사를 갖는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회 '신종교법안' 통과

기독교를 억압하는 '신종교법안'이 9월19일 러시아 의회를 통과해 향후 러시아에서 기독교의 합법적인 포교활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신종교법안의 주요내용에는 신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와 가톨릭 등에 대해서 '강제 등록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들은 러시아에서 종교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도 있어 한국불교 포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장...)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소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